

강북문화재단, 온가족 위한 '그림책 아트플레이'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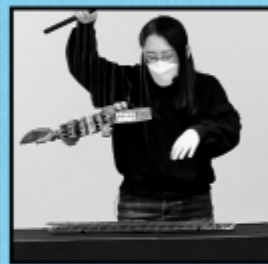
사진: 신일영 | 승인: 2024.07.07 13:39

7월 23일~27일, '그림책' 주제 공연·전시·북아트체험 선보여

강북 그림책

아트 플레이

이영경, 박연철, 미우, 이예숙 작가 공연 · 전시 · 체험



2024.7.23.(화) ~ 7.27.(토)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진달래홀

주최 |  강북문화재단  강북구 문의처 | 강북문화재단 02-994-8538

강북문화재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북 그림책 아트플레이'를 개최한다.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은 여름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북 그림책 아트플레이'를 오는 7월23일부터 27일까지 강북 문화예술회관 강북진달래홀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는 전 연령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림책'을 매개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면서 책읽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4명의 그림책 작가들의 1인 공연과 관련 전시, 북아트 체험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강북 그림책 아트플레이에 초빙된 작가들은 △그림책협회장으로 활동 중인 이영경 작가 △볼로냐 국제어린이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박연철 작가 △2023 독일 국제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화이트 레이븐스 선정 미우 작가 △환경부 환경우수도서로 선정된 '우리 곧 사라져요'의 이예숙 작가다.

먼저 오는 26일과 27일 '그림책 작가의 공연'에서는 작가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창작 그림책을 설명하는 1인극 무대가 펼쳐진다. 작가가 직접 독자들에게 그림책 메시지를 전하면서 소통하는 북토크도 이어질 예정이다.

23일부터 27일 강북진달래홀 갤러리에서는 그림책 전시가 열린다. 이영경 작가의 그림책 '넉점 반', '돌아온 주먹이' 원화와 오토마타, 박연철 작가 그림책 '지구를 지켜라', '떼루떼루' 원화와 오브제, 이예숙 작가 그림책 '이상한 구십구', '번개토끼' 원화 및 팝업북, 미우 작가 그림책 '공포의 새우눈', '나는 까마귀' 원화와 드로잉 등이 전시된다.

북아트 체험프로그램은 26일부터 27일 정오 12시부터 30분 단위로 5회까지 진행된다. 박연철 작가의 그림책 '떼루떼루', 이예숙 작가의 '이상한 구십구'를 함께 읽고, '떼루떼루 인형'과 '멸종 위기 동물 입체 퍼즐 만들기'를 체험하는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그림책을 즐길 수 있다.

'강북 그림책 아트플레이'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다. 북아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오는 10일까지 강북문화재단 홈페이지(www.gbcbf.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 밖에 궁금한 점은 강북문화재단(994-85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일영